

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 건설업 추락 사망재해 예방 '안전점검의 날' 실 시

✎ 권수진 기자 | ☎ 승인 2021.02.04 20:13



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는 4일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포항시 흥해읍 초곡리 일대에서 건설업 특별점검기획(Patrol)을 겸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추락'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건설현장 밀집지역에서 실시하여 소규모 건설현장 관계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안전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는데 있다.

박용규 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장은 "산업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이 높아 지므로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수준 향상과 노력이 요구된다"며 "이번 행사를 기점으

로 금년도 소규모 건설현장, 공장 등에서 다발하는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기획점검을 지속 전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권수진 기자 5369k@naver.com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